대촌농협 정관 변경 시도 '꼼수' 반발

조합장 3선 규정 아예 없애 무제한 연임계획

조합원들 "법 제정취지에 어긋나 묵과 안 돼"

대촌농협이 조합장의 연임 규정을 아예 없애려는 정관 변경을 시도해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대촌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대촌농협은 최근 2021년 제3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안을 논의하고 상임이사를 뽑았다. 상임이사는 홍성윤 현 상임이사가 조합장을 포함해 10명의 이사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연임 결정이 났다.

문제는 정관 일부 변경안 의결건. 이날 오전 지역별로 두 차례에 나눠 열린 임시대의원회에 상정된 대촌농협 정관 일부 변경안 가운데 현행 제51조 '임원의 정수'에서 현재 상임인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제55조 '임원의 임기'에서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항목을 아예 '삭제'하자고 주최 측으로부터 제안됐다.

농협법상 자산 규모 2,500억원 이상 농협 조합장은 비상임 근무형태를, 그 이하인 경우는 상임으로 근무한다. 대촌농협은 2,500억원 이하여서 상임조합장이 근무해 왔다.

대촌농협은 자체 정관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3선인 현 조합장은 임기가 만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촌농협은 자산규모가 작더라도 총회 의결을 통해 상임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관련법의 맹점을 이용, 변경을 시도했다. 꼼수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상임조합장은 법에 의거, 3선까지 가능하고 비상임의 경우는 연임 여부에 상관없이 당선되면 무제한으로 임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39개 마을 59명의 대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찬성 39표, 반대 20표로 변경안을 부결시켰다. 3분의 2 이상 찬성 때 가결이라는 규정에 단 한 표가 모자랐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한 조합원은 "농협이 관련법을 통해 상임조합장의 임기를 3선에 한정한 것은 조합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합의이자 약속"이라며 "정관 변경 시도는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조합원 역시 "내년 3월 치러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전남지역에서만 15곳 정도가 상임조합장 3선 규정에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규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구 변경한다면 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농협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촌농협은 2021년 1월 말 기준 조합원 1,872명, 준조합원 6,370명이 있다. 오는 27일께 결산총회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성진 기자

정몽규 회장 구속 촉구 학동참사시민대책위가 17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동 참사가 가시기도 전에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 퇴출과 정몽규 회장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초·중·고생 절반, 친구 대면시간 줄었다

광주교육청 설문조사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 절반가량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친구와 직접 만나는 시간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초·중·고등학생 6천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친구들과 직접 만나 함께 보내는 시간 변화와 관련해 응답자의 49.0%가 줄었다고 답했다. 15.2%는 늘었다고 대답했고, 35.8%는 코로나 전후 비슷하다고 각각 답했다. 친구들과 관계 변화와 관련해서는 24.6%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4.8%는 나빠졌다고, 70.6%는 코로나 전후 비슷하다고 각각 답했다.

친구들과 대면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가량인 상황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나빠졌다는 학생보다 좋아졌다는 학생이 많은 것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면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관계가 일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대면했을 때 학교폭력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도 같다"고 말했다.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83.8%)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16.2%) 대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급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드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85.2%)는 대답이 그렇다(14.8%)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무려 95.8%에 달했다.

또한 학생들의 95.0%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초·중·고 학생이 친구에 대해 의지하고 소중함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설문 조사 결과로 풀이된다. /이나라 기자

북구, 위기 청소년 생활비 특별 지원

내달 3일까지 모집

광주시 북구는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 특별 지원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자는 기존 만 9세부터 18세에서 올해 만 24세까지 확대됐으며 ▲비행과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등 8개 분야별로 월 15만원 이내부터 연 350만 원 이내 금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 지원이 원칙이고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에 따른 중위소득 72%(생활, 건강지원은 65% 이하) 이하 가구다.

오는 2월 중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다. /최환준 기자

5·18단체, 또 집안 싸움…일부 회원 병원행

공법단체 설립 놓고 갈등

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갈등을 빚은 5·18 단체 회원들 간 집단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내홍이 또다시 깊어지고 있다.

17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에 따르면 구속부상자회 회원 50여명은 지난 14일 오후 4·19혁명공로자회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 회의에서 강압적으로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설준위 회원들을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한 공로자회는 경비용역을 내세워 이들의 진입을 차단했지만, 거친 욕설과 함께 몸싸움이 회의 내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설준위 위원은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에게 머리를 구타당하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같은 갈등은 공로자회가 지난 4일 공법단체로 승인받게 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되면 구속부상자회는 법률에 따라 자동 해산되며, 이들의 재산과 권리, 의무가 공로자회에 승계되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합법적으로 개최된 회의를 무력으로 방해하고, 집단 구타해 중상을 입힌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이다"며 "구속부상자회의 무도한 불법시위와 집단폭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공로자회는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환준 기자

영·유아 급성호흡기 감염 주의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질병관리청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를 당부한 이후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표본검체 총 184건 중 31건(16.8%)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확인됐다.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1월 3주차에 표본검체에서는 53.6%의 검출률을 확인했다. /오선우 기자

광주동부소방, 공동주택 화재 주의 당부

광주 동부소방서는 17일 겨울철을 맞아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안전관리 등 화재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예방 주요 내용으로는 ▲각 세대별 소화기 비치 필수 ▲대피 시 피난계단 이용 및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방화문 항시 닫힘 상태 유지 ▲비상계단 등 비상통로 유도등 점등 상태 확인 ▲아파트 발코니 비상 대피공간 및 경량칸막이 위치 확인 등이 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아파트)은 많은 세대가 거주·생활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어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겨울철을 맞이해 안 쓰는 전열기 스위치 끄기 등 입주민의 관심과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경 매 교 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
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❶ 기초반, ❷ 중급반, ❸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전남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010-6670-9800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신축)

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융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융25억)
010-6670-9800